



※ 스포일러 주의



달까지 가자

저자 장류진
출판 창비
발매 2021.04.15.

친구가 추천해서 읽게 된 책이다

도지 코인, 일론 머스크 관련하여 나온 '화성 갈고니까' 믿을 의식한 제목인지는 모르겠다

대충 코인으로 화성 간다는 내용

코인, NFT 등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알게나마 솔리디티 공부도 해봤던 입장에서
코인 관련된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적어두고, 독서 모임에서 나눴지만 이 글에는 담지 않았다

애초에 코인 자체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책도 아니고, 2017-2018 대코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주목해
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개인적으로 매우 재밌게 잘 읽었다

363 페이지 다 읽는 데 2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적당히 읽고 넘어가도 줄거리 따라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듯하다

등장인물 셋에게서 나와 하나씩은 유사점을 찾았다

은상처럼 무언가에 확 꽂혀서 가까운 지인에게 설파하고 다니던 경험도 있고

지송처럼 늦바람이 무섭다고 뒤늦게 무언가 배워서 눈 돌아가 본 경험도 있고

특히나 다해에게서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다

고시원 생활, 학자금 대출 문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주 좁은 보폭으로 느껴지는 데서 오는 불안함, 압박감, 두려움

여기서 비롯된 한 탕 해보고 싶다는 욕망까지

보통 글 단락이 일기처럼 낱말 기준으로 나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따라붙는 게 재미있다
코인이 삶에 녹아든다는 게 느껴진달까
찾아봤는데, 사실 작품 속 낱말의 이더리움 금액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애초에 소재만 차용한 허구의 소설임을 알면서도
워낙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뛰어난 작품이라 찾아보게 된 듯
아래 해설 내용에 공감한다

작가가 지닌 개성적 시각과 구사하는 문체의 공력이 뛰어날수록
독자는 작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현실을 보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현실에 관한 찡찡한 재현을 마주하고 있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
이다.
그렇다.
이는 정확히 우리가 장류진의 소설을 읽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달까지 가자〉 349p

해설에서 한영인 문학평론가가 한국 문학사 투기의 계보로
'황금광, 미두, 부동산, 이더리움 let's go'를 외치며
도약과 상승 이야기를 한다

도약과 상승의 경험을 집단적으로 각인시킨 계기로 박정희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꼽는데, 그냥 문득 들었던 짧은 생각
근대화 프로젝트 세대와 비트코인 세대가 갖는 도약과 상승의 이미지는 크게 다르겠구나
집단이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아온 세대와
개인이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탑승하고 운이 맞물려 떡상하는 것을 보아온 세대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쪽을 비난하거나 편 들어줄 생각 없고 그냥 생각이 그랬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 얘기 오가면 사람 사이 박살 나는 거 쉽다 보니
가까운 지인과 이야기하면서도 돈 이야기는 조심스럽다
주인공 삼인방은 몇 번 갈등 빚었어도
결과적으로 남의 돈 탐내지 않으며
각자 한탕 하는 데 성공하고 관계도 유지한다는 게 참 보기 좋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좀 위태위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사건 터지면 연관된 과거사 다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
남 비밀 쉽게 얘기하는 거,
뒷담 하는 거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건데 다 하길래
물론 나도 뒤통스치는 않다

돈도 돈이지만 그럼에도 깨지지 않은 우정이 부러웠다는 거지
사실 먼발치에서 은상 같은 언니 가까이하기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돈 많고 나에게 급등 코인 알려주는 사람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려나

세 사람 전부 후반에 나락 가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야무지게 익절해서 솔직히 좀 아니꼬운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스스로 좀 민망했다
작가 말마따나 애초에 소설인데 3억 정도 쥐여주는 거면 소소하지 뭐

상대의 속뜻도 모르고 무작정 기분에만 휩쓸려 자격지심, 열등감 갖거나
그저 남 좋은 꼴은 못 보는 못된 심보를 고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 관인엄기를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생각난다
남 신경 쓰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만드는 데만 충실하다 보면
이것도 자연스레 고쳐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문체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자면
옥색 문고리 표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고 현실감 넘치는 묘사가 인상적이었다
나중에 중·고등 교과서에 근·현대 소설로 실릴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이 시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간접 체험이 가능할 것 같다
더 뛰어난 작품이 있으려나
소설을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마치며

이 작품과는 달리 발단으로 끝나지만 코인을 다룬 작품이 하나 더 있다
'방탕일기'라는 웹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좀 찻찻하긴 했지만 잘 봤다

함박사 나올 때마다 흥박사 생각나서 웃겼다
함박사님을 아세요?